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동북일보

수유배수지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계획에 따른 것

강북구의회의 보류로 행정처리 늦어져 초조한 파인트리 현장 분위기

강북구청(구청장 박경수)은 우이동에서 고급 콘도를 짓고 있는 파인트리 측이 기부채납이라고 한 수유배수지 부지를 받아야 하나? 알아야 하나?

◆콘도와 같이 토목공사 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져

파인트리가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땅은 우이동 산 21-2호 외 3필지 4,979㎡의 넓이로 서울에서 강북구 우이동과 평촌동 일대에 점차 재개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주민들을 위한 수도를 공급시설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추정되는 지가는 2억 622만2천 원으로 그만큼 구형의 재산이 늘어난다. 그러나 강북구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물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단지 지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다.

지난 5일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 제146회 임시회에서 강북구가 이와 관련해 제출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됐다. 환경관련단체들과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콘도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시행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땅을 받았다가는 차후 어떤 비난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구의원들은 일제처리를 미룬 것이다. 그렇다고 받지 말자고 반대한 것도 아니다. 그냥 안전처리를 보류한 것으로 이 같은 어정쩡한 강북구의회의 태도 때문에 파인트리 측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됐다. 차라리 구유재산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면 파인트리 측이 서울시에 사용승인을 해주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앞만을 파서 한창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콘도 건축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일하기가 어려워진다. 배수지 건립부지가 파인트리의 넓은 부지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 같이 공사를 해야 공사비용 절감은 물론 이중삼중으로 땅을 팔고 재포장하는 일 없이 한꺼번에 모든 건축을 끝낼 수 있다. 더욱이 지름 500mm의 상수도관 두 개가 파인트리 구역 내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



▲파인트리 측에서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수유배수지 건립 예정 부지, 옛 그린파크 건물 위쪽에 수형장과 추차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관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2만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 위한 시설

수유배수지는 용량 12,000㎥로 2012년 12월 완공계획이며, 수유동과 우이동, 도봉구 상문동 등 모두 2만6,950세대에 물을 공급하게 된다. 원래는 올해 9월 경 파인트리 측이 강북구에 기부채납건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 때문에 미뤄져 박경수 강북구청장이 취임한 7월 이후 구청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10월말 강북구의회에 제출했다.

"배수지 공사는 지금 해도 늦지요. 지난 7월 인·허가를 받아 벌써 착공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구

청의 재산취득절차가 끝나더라도 국립공원지역이어서 환경부와의 협의도 한 달 이상 걸리요. 그밖에 이런저런 절차로 한 달 이상 걸리죠. 그렇다고 콘도 공사를 그칠 때에 미루고 기다릴 수도 없죠."

파인트리의 시공사인 쌍용건설 현장 관계자들도 수유배수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걱정했다.

"지금 토목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 공사가 다 끝나고 관조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어려워져요."

파인트리 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허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

동북일보

지리산 케이블카 '관광-환경' 논쟁 재점화

로프길에 규제 완화 뒤 지자체를 설치경쟁 치열
환경단체들 "자연훼손 우려...타당성 검토 시급"

환경전문가는 지난 11일 지리산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케이블카 설치 경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공원 안 자연환경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로프길(케이블카)의 길이 제한이 2km에서 5km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잠잠하던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진주시·함양군 등 지리산권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설치 경쟁이 본격화했다. 지리산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남 함양군은 10일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보고회를 열어, 자연환경보존지구 3.2km를 포함해 백두동-경터목 4.5km 구간에 500인승 케이블카 2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에 지리산자연공원의 공원 계획 변경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경터목에서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까지 등산로가 이미 개발돼 있어 천왕봉에 가기를 꿈꾸는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코스"라고 설명했다.

경남 산청군은 지난날 28일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용역 완료보고회를 열며 데 이어 지난 4일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산청군은 2014년까지 자연환경보존지구 2.3km를 포함해 총 산리-재석봉 5.4km 구간에 8인승 관람차 6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석봉의 모든 등산로를 차단하고, 케이블카로 재석봉에 오를 사람은 반드시 터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남원시는 자연환경보존지구 3.4km를 포함해 반선-반야봉 7.3km 구간에 8인승 관람차 60대를 설치할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이달 말 환경부에 낼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반야봉은 천왕봉을 포함해 지리산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이며, 동시에 다른 9는 곳보다 등산로를 폐쇄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스"라고 밝혔다.

전남 구례군은 산동 지리산자연공원지구-노고단 4.5km 구간에 설치할 계획을 세워 이미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신청서를 보냈다. 자연환경보존지구가 전례 포함되지 않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이

전에도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리산자연공원과 연계된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보존지구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구례군의 계획을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환경단체들의 케이블카 설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지리산공포연대는 6일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산보로를 연 뒤 지리산도산길을 답사했다.'

또 이들은 케이블카 설치의 문제점을 홍보하며 동상화과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있다.

유주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은 "케이블카가 없어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지리산에 오르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지자체가 이를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끝없는 '번'이라는 '경쟁'에서 지자체들의 경쟁을 차단하고, 전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일보

社說

케이블카설치 때 잃으면 기회 다시 안돌아와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경산도와 천주교에 의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이 마친 것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가 왔다 해 환경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면서 환경적 개발이 많은 관광유치와 노약자를 위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산도는 함양군은 백두동에서 경터목까지 4.5km에 500인승 2대를 설치할 계획인 반면, 산청군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용역대비를 갖고 2014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례군도 남양군역시 7.3km 구간에 8인승 6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구례군 역시 지리산 자연공원에서 노고단까지 4.5km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용역대비를 갖고 2014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구례군은 산청군과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리산 케이블카의 필요성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지리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수하고 싶어서 옮기려면 지자체장은 강북구민들에게는 어떤 지도자로 추앙받게 되겠는지, 후세의 강북구민들에게 후회할 만한 영웅한 지도자로 자손만대에 기억될 것이 명약과 화약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강북구는 지역의 한계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땅이 없기에 무리하게 수억 원에 달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강북구는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땅이 없기에 무리하게 수억 원에 달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강북구는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땅이 없기에 무리하게 수억 원에 달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듯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리산 케이블카의 필요성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지리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리산 케이블카의 필요성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지리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